
강도범죄의 장소와 수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 지 연 ** · 김 지 영 ***

[국문요약]

강도범죄는 심각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강력범죄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강도범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근거가 되는 배경이론으로서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을 살펴 보았다. 범행의 특성상 재범확률이 높은 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거주지나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장소 등의 특징이 강도범죄의 수법이나 범행내용, 대상의 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도범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인들 가운데 지리학적 요인들이 범행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범죄발생 장소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범행수법과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범죄발생장소의 구체적 유형이 범행수법 및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 논문발표일 : 15. 5. 25., 논문심사일 : 15. 6. 9., 게재확정일 : 15. 6. 30

이 논문은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한 '연구총서 14-B-06: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II(연쇄강도)'의 연구수행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 동양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강사 E-mail : 0220kky@naver.com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71jykim@hanmail.net

SPSS 19.0 프로그램으로 변수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제 어 : 강도범죄, 피해자화,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이론, 범죄패턴이론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I. 서 론

범죄는 인간행동의 결과물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범행을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자 개인적 측면보다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나 기회, 행동양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를 인간행동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 이론 등의 일상활동적 관점의 이론들은 범행을 유발하는 기회나 상황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요인들이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접근 모델들은 특정 유형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상활동적 접근은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데,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로즈모(D. Kim Rossmo, 1999)가 고안해낸 프로파일링 기법으로서, 범죄자를 둘러싼 장소나 지리적 요인들이 범죄자가 범행대상을 모색하고 범행수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강력범죄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강도범죄를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강도범죄는 상대방의 재산을 무력이나 폭력, 협박 등을 통해 빼앗거나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력행위가 수반되는 강력범죄이다(Siegel, 2010: 320). 범행의 특성상 재범확률이 높은 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거주지나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장소 등의 특징이 강도범죄의 수법이나 범행내용, 대상의 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도범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인들 가운데 지리학 적 요인들이 범행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범죄발생 장소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범행수법과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죄 발생장소 간의 거리가 범행수법과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셋째, 범죄 발생장소의 구체적 유형이 범행수법 및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범죄에 관한 지리학적 측면의 논의

지리학적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려는 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퀘틀레(A.M. Quetelet)와 게리(A.M. Guerry)의 연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범죄의 지역적 형태를 분석하여 범죄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였고, 맵핑화하기 위해서 범죄와 사회경제적 조건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E. McLaughlin & J. Muncie, 2006: 185).

이후 시카고학파는 시카고 시의 높은 범죄율을 도시생태계의 한 현상으로 규정하고(E. McLaughlin & T. Newburn, 2010: 73), 동심원 모델을 통해서 시카고 시의 지리적 특성이 범죄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도시의 지리적 특성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활패턴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로즈모는 범죄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범죄자의 활동 거점이 되는 장소

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간적 상호관련성에 근거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을 고안해 냈다(C. Bartol & A. Bartol, 2005: 330). 지리학적 측면에 기반한 이러한 기법들은 상황범죄학이나 기회이론, 일상활동이론 등의 모델을 배경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2. 일상활동적 접근

1) 일상활동이론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1979)은 일상의 생활패턴과 생활양식 등이 범행에 노출되는 기회와 관련되고, 이러한 생활양식에는 여가 및 교육 활동 등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조건 등의 위험한 기회와 관련되며, 이를 일상활동이론이라고 지칭하였다(Haynie & Osgood, 2005: 1112).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호자의 부재와 매력적인 범행대상, 동기화된 범죄자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은 특히 약탈적인 범죄나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의 피해가능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Osgood et al., 1996: 640).

본래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발생의 기회는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다고 보았고, 범죄를 유발하는 기회와 범행선택의 절차 그리고 다양한 사회구조적 측면이 범죄의 피해화가능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후 오스굿 등(Osgood et al., 1996)의 연구를 통해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다(Haynie & Osgood, 2005: 1112).

2) 생활양식이론

힌델랑, 갓프레드슨 그리고 가로팔로(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는 개인이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가능성은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서 다니지 않는다는 등의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이를 생활양식이론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한 시간

이나 장소, 상황 등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피해 가능성은 다르게 분포된다고 한다(이윤호, 2007: 87).

힌텔랑 등의 생활양식이론에서는 사회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유사한 생활양식이나 생활방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생활스타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이나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주지 안이나 주변에서 주로 생활하는 여성과 바깥활동이 많은 남성의 범죄피해화가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여가 활동을 어떠한 장소에서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범죄피해화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Walklate, 1989: 7-8).

3) 구조적 선택이론

미드와 마이어의 구조적 선택이론(Miethe & Meier, 1994)은 범죄피해화의 가능성은 미시적 측면의 일상활동적 요인들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측면과 지리적 측면의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앞서 언급한 일상활동 이론과 달리 거시적 측면의 분석모델이다(Dodson, 2001).

구조적 선택이론은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과 같은 미시적 측면의 모델과 거시적 측면의 요소들인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지리적 요인들 모두를 통합하여 범죄기회 구조의 높고 낮음으로 피해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Miethe, Strafford & Long, 1987).

미드와 마이어의 1994년 연구는 위험한 기회에의 노출이 범죄발생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생활양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인종, 성, 계층 등의 구조적 요소들이 범죄피해화에 관련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힌텔랑 등의 생활양식이론을 지지하고 있다(Larsson, 2006: 14-15).

4) 일상활동적 관점의 선행연구

강도 범죄를 일상활동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들은 폭력재산범죄가 개인들의 직업에 따른 일상생활 스타일과 같은 미시적 측면과 가구형태, 거주지 특성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 발생한 강절도 범죄를 분석한 샘슨과 우드리지(Sampson & Wooldredge, 1987)의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이 특히 독신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 선

택이론을 제시하였던 미드의 연구는 보다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미드와 맥도웰(Miethe & McDowall, 1993)의 연구를 보면, 개인의 일상 활동이 강절도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지만, 경제적 하류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재산폭력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드의 1993년 연구결과는 1994년 마이어와 수행하였던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수준과 거주지 특성과 같은 거시적 측면과 개인의 일상생활양식과 같은 미시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피해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서 강절도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은 생태학이론에서 주장하는 사회해체지역에서 노상범죄들이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들과도 관련될 수 있다. 스미스 등의 연구(Smith, Frazee & Davison, 2000)에서는 노상강도가 특히 범죄자의 일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주활동지역이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주활동지역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즉, 사회유대가 깨진 사회해체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mith, et al., 2000: 489-524). 주민참여가 높은 지역사회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주민들 간에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따라서 범죄에 대한 방어가 잘 되어있지만, 독신가구나 한 부모 가정이 많은 지역, 이주민의 빈번한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어 있고, 이러한 지역에서 특히 노상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3. 범죄패턴이론

고전주의학파나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인간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때 순간마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범죄패턴이론은 이러한 전제하에 인간은 범죄를 모의하는 단계부터 범죄를 실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범행장소의 선택 등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존재로 간주한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98).

특히 범죄패턴이론에서는 심리적 지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자는 일상에서 자주 활동하는 장소나 공간 등을 내면에 숙지하고 있고,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에 적합한 대상 등을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면의 지도가 범행장소의 선택과 활동장소를 지정하는데 관여한다고 보고 있다(Canter & Larkin,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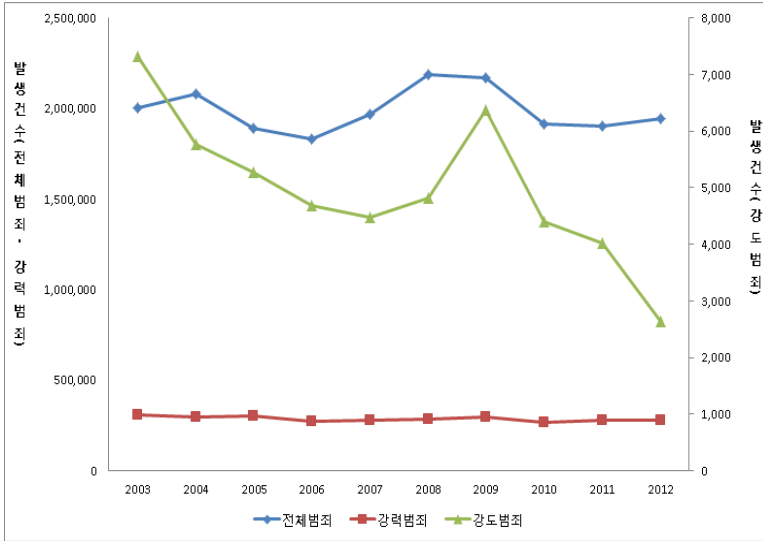
4. 지리학적 분석을 통한 연구경향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많이 시도되고 있다. GIS를 이용한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범죄 위험도 평가연구(강석진과 이경훈, 2010),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전재한 외, 2006), GIS와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의 범죄취약지도 작성(박동현 외, 2015), GIS와 상관 및 회귀분석을 활용한 5대 범죄의 특성분석(김창규 외, 2014),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정경석 외, 2009), GIS를 이용한 범죄의 시공간적 패턴 연구-서울시 강남구를 사례로(신우람과 황철수, 2005), 범죄발생지점의 공간적 특성분석을 통한 인위적 감시지역의 선정(김동문과 박재국, 2010), 도시공간정보 기반의 범죄발생 확률 모형 및 위험도 확률지도 생성(김동현과 박구락, 2009) 등을 들 수 있다.

5. 공식통계

[그림 1] 은 강도범죄와 강력범죄 그리고 전체범죄의 최근 10년 동안 전반적인 발생건수와 변화추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표화한 것이다. 전체범죄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강력범죄와 강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0년간 별다른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범죄는 소폭의 증감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강도범죄의 경우 2008과 2009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 발생추이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는 수사재판기록을 이용하였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강도범죄로 기소된 강도범죄자의 사건번호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았고, 최종으로 조사가 완성된 건수는 1,012건이었다. 수사재판기록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1일에서 2014년 9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2. 변수측정 및 분석방법

분석에 이용된 주요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행당시 가해자 연령, 강도범죄의 반복성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 여부, 공범유무, 폭행특성, 피해내용, 피해자 특성, 둘째, 사건 발생장소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정도,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 거주지간 거리,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분석결과 최종 조사 건수는 1012건이었지만, 경합된 사건들이 있었던 관계로 전체 건수는 1712건이다.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가해자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범죄 중 가해자 연령은 성년이 1034건으로 미성년 678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의 경우 일련의 장소 중 친숙한 장소가 37.9%, 성년의 경우 낯선 장소가 45.3%로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가해자 연령

단위: 건(백분율)

가해자 연령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전체
	거주지	친숙한장소	낯선 장소	미상	
미성년	191(28.2)	257(37.9)	188(27.7)	42(6.2)	678
성년	235(22.7)	262(25.3)	468(45.3)	69(6.7)	1034
합계	426(24.9)	519(30.3)	656(38.3)	111(6.5)	1712

(df=3) $\chi^2=59.205^{***}$ $^{***}p<.001$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재범여부를 분석한 <표 2>를 보면, 전체범죄 중 재범이상이 1046건으로 초범 666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이상의 경우 낯선 장소(42.6%), 초범의 경우 거주지(33.6%)에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강도범행의 재범여부

단위: 건(백분율)

범행의 반복성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전체
	거주지	친숙한장소	낯선 장소	미상	
재범 이상	202(19.3)	319(30.5)	446(42.6)	79(7.6)	1046
초범	224(33.6)	200(30.0)	210(31.5)	32(4.8)	666
합계	426(24.9)	519(30.3)	656(38.3)	111(6.5)	1712

(df=3) $\chi^2 = 51.412^{***}$ ****p<.001〈표 3〉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관계

단위: 건(백분율)

면식 관계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전체
	거주지	친숙한장소	낯선 장소	미상	
아는 사이	69(40.4)	56(32.7)	43(25.1)	3(1.8)	171
가해자만 알고있음	10(22.2)	26(57.8)	6(13.3)	3(6.7)	45
모르는 사이	343(23.2)	430(29.1)	605(40.9)	101(6.8)	1479
미상	3(37.5)	3(37.5)	2(25.0)	0	8
합계	426(24.9)	519(30.3)	656(38.3)	111(6.5)	1712

(df=9) $\chi^2 = 55.882^{***}$ ****p<.001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피해자와 가해자간 인식관계를 보여주는 <표 3>을 보면, 전체범죄 중 모르는 사이가 147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이의 경우 거주지(40.4%)에서 가장 강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만 알고 있는 경우는 친숙한 장소(57.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이에서는 낯선 장소가 40.9%로 다른 장소 유형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거주지의 발생하는 강도범죄의 경우 아는 사이가 가장 높았고(40.4%), 친숙한 장소의 경우 가해자만 알고 있는 경우(57.8%), 낯선 장소의 경우 모르는 사이가 4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공범관계

단위: 건(백분율)

공범 관계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전체
	거주지	친숙한장소	낯선 장소	미상	
공범 없음	164(32.2)	128(25.1)	173(34.0)	44(8.6)	509
공범 있음	262(21.8)	391(32.5)	482(40.1)	67(5.6)	1202
합계	426(24.9)	519(30.3)	656(38.3)	111(6.5)	1712

(df=3) $\chi^2 = 30.711^{***}$ $***p < .001$

〈표 4〉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공범이 있는 경우가 1202건으로 공범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장소가 공범없음의 경우 34.0%, 공범있는 경우 40.1%로 가장 높았다. 장소별로 보았을 때, 단독범의 경우 거주지 비율이 32.2%로 공범있는 경우보다 높았고, 다른 장소의 경우 모두 공범있는 경우가 단독범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표 5〉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피해자 특성

단위: 건(백분율)

피해자 특성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전체
	거주지	친숙한장소	낯선 장소	미상	
남성1인	211(28.7)	229(31.2)	254(34.6)	41(5.6)	735
여성1인	149(23.9)	164(26.3)	264(42.3)	47(7.5)	624
다수	66(18.7)	126(35.7)	138(39.1)	23(6.5)	353
합계	426(24.9)	519(30.3)	656(38.3)	111(6.5)	1712

(df=6) $\chi^2 = 24.238^{***}$ $***p < .001$

〈표 5〉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피해자가 남성1인, 여성1인, 다수인 순으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장소가 남성1인 34.6%, 여성1인 42.3%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았을 때, 거주지와 친숙한 장소의 경우 남성 1인이 여성1인과 다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낯선 장소의 경우는 남성1인(34.6%)과 다수(39.1%)보다 여성1인이 42.3%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폭행특성

단위: 건(백분율)

폭행 특성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전체
	거주지	친숙한 장소	낯선 장소	미상	
폭행 없음	83(22.8)	103(28.3)	167(45.9)	11(3.0)	364
도구 이용	187(23.2)	206(25.6)	335(41.6)	78(9.7)	806
구타 및 완력	299(24.9)	392(32.6)	445(37.0)	66(5.5)	1202
언어적 폭력	178(22.7)	256(32.7)	304(38.8)	45(5.7)	783
기타	36(19.6)	65(35.3)	73(39.7)	10(5.4)	184
미상	1(6.3)	3(18.8)	4(25.0)	8(50.0)	16
합계	426(24.9)	519(30.3)	656(38.3)	111(6.5)	1712

〈표 6〉을 보면, 전체 범죄건수 중 신체를 이용한 구타와 완력이 1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흉기나 결박테이프 등을 이용한 도구이용이 806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폭행 특성별로 보면, 폭행 없음(45.9%), 도구이용(41.6%), 구타 및 완력(37.0%), 언어적 폭력(38.8%), 기타 모두 낯선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았을 때, 거주지와 친숙한 장소의 경우 구타 및 완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되었다. 반면 낯선 장소의 경우 폭행없음이 4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구이용의 비율이 다른 폭행특성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되었다.

〈표 7〉은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피해유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건수 가운데 금전적 피해유형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피해가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낯선 장소가 피해없음(40.4%), 신체적 피해(36.5%), 금전적 피해(38.9%), 정신적 피해(37.8%)의 모든 유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적피해의 경우 다른 장소보다 거주지가 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피해유형

단위:건(백분율)

피해 유형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				전체
	거주지	친숙한장소	낯선 장소	미상	
피해 없음	38(23.6)	52(32.3)	65(40.4)	6(3.7)	161
신체적 피해	254(27.6)	290(31.5)	336(36.5)	41(4.5)	921
금전적 피해	345(24.6)	418(29.9)	544(38.9)	93(6.6)	1400
정신적 피해	7(18.9)	13(35.1)	14(37.8)	3(8.1)	37
성적 피해	44(32.8)	37(27.6)	39(29.1)	14(10.4)	134
기타	0	1(20.0)	4(80.0)	0	5
미상	2(18.2)	2(18.2)	0	7(63.6)	11
합계	426(24.9)	519(30.3)	656(38.3)	111(6.5)	1712

2.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

〈표 8〉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가해자 연령

단위:건(백분율)

가해자 연령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									전체
	집	학교	사무실	유흥업소	숙박업소	길거리	상점	기타	미상	
미성년	79 (11.7)	2 (0.3)	2 (0.3)	8 (1.2)	148 (21.8)	303 (44.7)	35 (5.2)	104 (15.3)	3 (0.4)	678
성년	321 (31.0)	6 (0.6)	54 (5.2)	71 (6.9)	75 (7.3)	193 (18.7)	164 (15.9)	167 (16.2)	2 (0.2)	1034
합계	400 (23.4)	8 (0.5)	56 (3.3)	79 (4.6)	223 (13.0)	496 (29.0)	199 (11.6)	271 (15.8)	5 (0.3)	1712

〈표 8〉의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가해자 연령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건수 가운데 성년의 비율이 미성년보다 1034건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의 경우 길거리(44.7%), 숙박업소(21.8%)의 비율이 다른 장소에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년의 경우 집

(31.0%), 상점(15.9%)의 비율이 다른 장소 유형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강도범행의 재범여부

단위:건(백분율)

재범 여부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									전 체
	집	학교	사무 실	유흥 업소	숙박 업소	길거 리	상점	기타	미상	
재범 이상	222 (25.0)	7 (0.7)	15 (1.4)	35 (3.3)	198 (18.9)	246 (23.5)	137 (13.1)	148 (14.1)	3 (0.3)	1046
초범	138 (20.7)	1 (0.2)	41 (6.2)	44 (6.6)	25 (3.8)	250 (37.5)	62 (9.3)	123 (18.5)	2 (0.3)	666
합계	400 (23.4)	8 (0.5)	56 (3.3)	79 (4.6)	223 (13.0)	496 (29.0)	199 (11.6)	271 (15.8)	5 (0.3)	1712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가해자 재범여부의 관계를 보면 <표 9>와 같다. 전체 건수 가운데 재범이상의 비율이 초범보다 1046건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이상의 경우 모든 장소유형 가운데, 집(25.0%)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범의 경우 길거리(37.5%)의 비율이 다른 장소 유형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았을 때, 집(25.0%), 숙박업소(23.5%), 상점(13.1%)의 경우 재범이상이 초범보다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흥업소에서는 초범(6.6%)이 재범(3.3%)이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면식관계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전체 건수 가운데 모르는 사이가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식관계별로 살펴보면, 아는 사이에서는 집(3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해자만 알고 있거나 모르는 사이의 경우 길거리가 46.7%, 28.6%를 각각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집에서 발생하는 강도범죄의 경우 아는 사이에서(30.4%)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길거리나 상점의 경우 가해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46.7%, 13.3%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면식관계

단위:건(백분율)

면식 관계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									전 체
	집	학교	사무 실	유흥 업소	숙박 업소	길거 리	상점	기타	미상	
아는 사이	52 (30.4)	0	13 (7.6)	13 (7.6)	9 (5.3)	42 (24.6)	5 (2.9)	41 (24.0)	2 (1.2)	171
가해자만 알고있음	6 (13.3)	0	4 (8.9)	1 (2.2)	1 (2.2)	21 (46.7)	6 (13.3)	5 (11.1)	1 (2.2)	45
모르는 사이	340 (23.0)	8 (0.5)	39 (2.6)	65 (4.4)	212 (14.3)	423 (28.6)	186 (12.6)	223 (15.1)	2 (0.1)	1479
미상	2 (25.0)	0	0	0	1 (12.5)	3 (37.5)	0	2 (25.0)	0	8
합계	400 (23.4)	8 (0.5)	56 (3.3)	79 (4.6)	223 (13.0)	466 (29.0)	199 (11.6)	271 (15.8)	5 (0.3)	1712

〈표 11〉을 보면, 전체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공범없음의 경우 집(35.8%), 상점(18.9%)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범있음의 경우 길거리(34.1%)와 숙박업소(16.2%)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공범있음이 숙박업소(16.2%), 길거리(34.1%)에서는 공범없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과 상점의 경우 공범없음이 공범있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공범관계

단위:건(백분율)

공범 관계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									전 체
	집	학교	사무 실	유흥 업소	숙박 업소	길거 리	상점	기타	미상	
공범 없음	182 (35.8)	2 (0.4)	21 (4.1)	30 (5.9)	27 (5.3)	86 (16.9)	96 (18.9)	70 (13.8)	0	509
공범 있음	218 (18.1)	6 (0.5)	35 (2.9)	49 (4.1)	195 (16.2)	410 (34.1)	103 (8.6)	201 (16.7)	5 (0.4)	1202
합계	400 (23.4)	8 (0.5)	56 (3.3)	79 (4.6)	223 (13.0)	466 (29.0)	199 (11.6)	271 (15.8)	5 (0.3)	1712

<표 12>는 구체적 장소 유형과 피해자 특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1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길거리가 3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박업소가 24.6%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1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높았다.

<표 12>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피해자 특성

단위:건(백분율)

피해자 특성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									전 체
	집	학교	사무 실	유흥 업소	숙박 업소	길거 리	상점	기타	미상	
남성1 인	90 (12.2)	4 (0.5)	29 (3.9)	19 (2.6)	181 (24.6)	225 (30.6)	95 (12.9)	103 (14.0)	4 (0.5)	735
여성1 인	211 (33.8)	1 (0.2)	15 (2.4)	42 (6.7)	37 (5.9)	133 (21.3)	94 (15.1)	97 (15.5)	0	624
다수	99 (28.0)	3 (0.8)	12 (3.4)	18 (5.1)	5 (1.4)	138 (39.1)	10 (2.8)	71 (20.1)	1 (0.3)	353
합계	400 (23.4)	8 (0.5)	56 (3.3)	79 (4.6)	223 (13.0)	436 (29.0)	199 (11.6)	271 (15.8)	5 (0.3)	1712

<표 13>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폭행유형

단위:건(백분율)

폭행 유형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									전 체
	집	학교	사무 실	유흥 업소	숙박 업소	길거 리	상점	기타	미상	
폭행 없음	44 (12.1)	0	10 (2.7)	17 (4.7)	95 (26.1)	115 (31.6)	44 (12.1)	45 (12.4)	2 (0.5)	364
도구 이용	321 (39.8)	1 (0.1)	38 (4.7)	40 (5.0)	66 (8.2)	85 (10.5)	129 (16.0)	136 (16.9)	0	806
구타 및완력	323 (26.9)	8 (0.7)	42 (3.5)	58 (4.8)	104 (8.7)	382 (31.8)	76 (6.3)	228 (19.0)	1 (0.1)	1202
언어적 폭력	231 (29.5)	6 (0.8)	27 (3.4)	36 (4.6)	105 (13.4)	168 (21.5)	81 (10.3)	138 (17.6)	2 (0.3)	783
기타	61 (33.2)	1 (0.5)	15 (8.2)	7 (3.8)	34 (18.5)	15 (8.2)	10 (5.4)	47 (25.5)	0	184
미상	2 (12.5)	0	0	0	2 (12.5)	11 (68.8)	0	0	1 (6.3)	16
합계	400 (23.4)	8 (0.5)	56 (3.3)	79 (4.6)	223 (13.0)	436 (29.0)	199 (11.6)	271 (15.8)	5 (0.3)	1712

<표 13>을 보면, 전체 강도범죄 중 구타 및 완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폭행 유형으로 나타났다. 도구이용의 경우 다른 장소보다 집(3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타 및 완력의 경우 길거리(31.8%), 집(26.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집의 경우 도구이용(39.8%), 구타 및 완력(26.9%)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의 경우 구타 및 완력(31.8%)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폭행유형으로 결과되었다.

<표 14>를 보면, 전체 강도범죄 금전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가 가장 높은 피해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도구이용의 경우 다른 장소보다 집(3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의 경우 길거리(36.4%), 금전적 피해의 경우 또한 길거리(28.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집에서 발생하는 강도범죄의 경우 성적피해(51.5%), 정신적 피해(48.6%)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강도범죄의 경우 신체적 피해(36.4%), 금전적 피해(28.8%)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해유형으로 결과되었다.

<표 14>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유형과 피해유형

단위:건(백분율)

피해 유형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유형									전체
	집	학교	사무실	유흥업소	숙박업소	길거리	상점	기타	미상	
피해 없음	30 (18.6)	1 (0.6)	4 (2.5)	12 (7.5)	31 (19.3)	40 (24.8)	24 (14.9)	19 (11.8)	0	161
신체적 피해	208 (22.6)	5 (0.5)	32 (3.5)	37 (4.0)	95 (10.3)	335 (36.4)	45 (4.9)	175 (19.0)	2 (0.2)	921
금전적 피해	335 (23.9)	7 (0.5)	48 (3.4)	62 (4.4)	188 (13.4)	403 (28.8)	159 (11.4)	217 (15.5)	4 (0.3)	1400
정신적 피해	18 (48.6)	0	3 (8.1)	3 (8.1)	0	6 (16.2)	3 (8.1)	7 (18.9)	0	37
성적 피해	69 (51.5)	1 (0.7)	2 (1.5)	11 (8.2)	17 (12.7)	7 (5.2)	1 (0.7)	29 (21.6)	0	134
기타	0	0	0	0	2 (40.0)	0	0	3 (60.0)	0	5
미상	0	0	0	0	0	9 (81.8)	0	1 (9.1)	1 (9.1)	11
합계	400 (23.4)	8 (0.5)	56 (3.3)	79 (4.6)	223 (13.0)	436 (29.0)	199 (11.6)	271 (15.8)	5 (0.3)	1712

3. 소결

우선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에 따른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들의 경우 거주지나 친숙한 장소에서 강도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년범은 낯선 장소에서 강도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원거리 이동이 제한되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기회에 더 많이 노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친숙한 장소는 거주지는 아니지만 학교 등 익숙하고 친숙한 장소를 의미하는 변수로서, 학교 주변 또한 거주지만큼 미성년자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이고, 보통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성년자들에게 친숙한 장소와 거주지는 심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에 따른 범행의 반복여부와 관련된 결과를 보면, 공식통계상 강도범죄는 일회성에 끝나기 보다는 재범율이 높은 범행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강도범죄 가운데 재범이상의 비율이 단독범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에 따른 범행의 반복성 차이를 살펴보면, 초범자들의 경우 거주지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결과되는데, 이는 초범자들의 경우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우연히 혹은 충동적으로 범행기회에 노출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에 따른 면식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대인범죄들이 아는 사이에서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강도범죄의 경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공범 여부를 보면, 강도범죄가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통계상 나타난 강도범죄 특성처럼 강도의 경우 단독범보다 공범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행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다수보다는 1사람이 피해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유형임을 알 수 있다.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에 따른 폭행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타, 도구이용, 협박과 같은 언어적 폭력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강도범죄 특성상 상대로부터 원하는 바를 억지로 빼앗기 위해서 범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피해정도가 큰 강력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거주지나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구타나 완력과 같은 신체적 폭행이 주로 수반되는 것에 비해 낯선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도범죄의 경우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낯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강도범죄의 경우 사전 계획성과 관련됨을 유추할 수 있다.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에 따른 피해유형의 차이를 보면, 성적 피해가 특히 장소적 특징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성적 피해의 경우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도범행에서 다른 피해유형의 경우 낯선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적 피해가 수반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잘 아는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변수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성년범들의 경우 숙박업소와 길거리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성인범들의 경우 집이나 상점에서의 범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비행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범행의 집단성이다. 특히 요즘 가출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탈하여 집단적으로 생활하며 범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성인범들의 경우 청소년비행자들 보다는 더 큰 금전적 댓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현금이 많이 되는 상점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주거침입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도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재범율이었고, 반복해서 강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범행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익숙한 수법을 선호하게 된다. 반복범죄자들이 주로 관련되는 범행장소는 집이나 숙박업소, 상점 등이다. 집이나 상점을 침입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청소년비행자나 어린 범죄자들의 경우 공식자료에서 보듯이 성매매를 매개로 숙박업소로 유인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다. 유흥업소나 길거리 같은 경우 초범의 비중이 높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음주 중 시비가 불거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초범들이 관련될 가능

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아는 사이의 경우 집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는데, 집은 사적인 공간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는 범행장소로 선택하기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이다. 유흥업소의 경우도 아는 사이의 비중이 높다. 이는 면식관계로 함께 있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상점의 경우 가해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전에 범행대상으로 선점을 하는 계획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의 경우 길거리나 숙박업소에서 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집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의 경우 노상범죄라는 특징 때문에 길거리에서 남성들 간에 많이 발생한다. 숙박업소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성매매로 유인된 남성들이 강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폭행유형에서 집의 경우 도구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과 같은 형태의 범행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수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길거리 범죄의 경우 신체를 이용한 폭력이 가장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흔한 형태인 노상강도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기 보다는 범행기회라는 요인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범행수법이다. 계획범이라기 보다는 기회범이기 때문에 범행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지나친 폭력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유형을 보면 집에서 발생하는 강도범죄의 경우 성적피해와 정신적 피해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집에서 발생하는 범행의 경우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것이고, 옥내에서 발생하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적 피해와 같은 다른 유형의 피해를 함께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크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도와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징이 범행수법이나 피해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강도범죄의 수법이나 피해내용은 범죄와 관련되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대한 통제와 개인의 행동 변화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를 보면 범죄자는 비교적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상강도가 주로 범죄자가 잘 아는 혹은 정서적으로 친숙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았던 스미스 등 (Smith, Frazee & Davison, 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사건발생의 구체적 장소를 보면,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노상강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노상강도의 피해자를 보면, 대부분 남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상활동이론이나 생활양식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보다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들이 노상강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집에서 강도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선택이론에서는 독신거주지에서 재산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주장처럼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실내에서 침입강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성폭행과 같은 성적 피해가 수반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일상활동과 주활동 지역, 그리고 범행수법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도범죄로부터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강도범죄의 수법 중 노상강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개인물품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찰은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분석하였던 케네디와 포드(Kennedy & Forde)의 1990년 연구는 미혼의 남성이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특히 이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야외에서의 활동과 술집 출입이 많은 남성의 경우 여성들보다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Groff, 2007: 75-103). 따라서 노상강도나 주점에서의 강도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이 드문 시간이나 장소에서 홀로 산보

를 하는 일은 줄이도록 하고, 주점에서 취중에 타인과 폭행 등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혼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주변에 대한 감시의 강화를 위해 CCTV의 설치나 가로등 등의 설치와 보완, 출입문과 창문에 대한 방어설비 강화와 철저한 문단속 등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소규모 점포에 대한 경비시스템을 보완한다.

연구결과는 미성년자들이 성관계를 미끼로 하여 숙박업소로 유인하여 강도범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숙박업소 등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살피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남성들은 이러한 유인강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매개로 하여 미성년과 성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도범죄의 전과를 보면, 초범보다는 재범자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재소자의 교정과 처우에 힘써 이들이 직업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이 출소 후 재사회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개인의 사소한 생활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문단속과 같은 사소한 주의 강화로도 주거침입과 같은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과 유관기관, 주민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강도범죄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석진, 이경훈, (2010).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범죄 위험도 평가연구 -GIS를 기반으로 한 MLRA method의 적용”,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86-95.
- 김동문, 박재국, (2010). “범죄발생지점의 공간적 특성분석을 통한 인위적 감시지역의 선정”,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18(3): 83-90.
- 김동현, 박구락, (2009). “도시공간정보 기반의 범죄발생 확률 모형 및 위험도 확률지도 생성”,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14(10): pp. 207-215.
- 김창규, 강인준, 박동현, 김상석, (2014). “GIS와 상관 및 회귀분석을 활용한 5대 범죄의 특성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2(3): pp. 71-77.
- 박동현, 강인준, 최현, 김상석, (2015). “GIS와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의 범죄취약지도 작성”,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3(1): pp. 31-37.
- 신우람, 황철수, (2005). “GIS를 이용한 범죄의 시공간적 패턴 연구-서울시 강남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35-35.
- 이운호, (2007). 피해자학. 박영사: 87.
- 전재한, 권재현, 양효진, 최운수, (2006).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 「한국 GIS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112-115.
- 정경석, 문태현, 정재희, 허선영, (2009).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 12(1): pp. 12-25.
- Bartol. C. & A. Bartol, (2005).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7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Brantingham, P. J. & P. L. Brantingham, (1998). Environmental Criminology: From Theory to Urban Planning Practice, Studies on Crime and Crime Prevention 7: 1-30.
- Canter, D. & P. Larkin, (1993). “The Environmental Range of Serial Rapi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63-69.
- Dodson, Kimberly D., (2001). “An Examin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Using an Integrated Model Approach”,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M.A Dissertation.

- Groff, E. R., (2007). "Simulation for Theory Testing and Experimentation: An Example Us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Street Robbe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3(2): 75-103.
- Haynie, Dana L. & D. Wayne Osgood, (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2): 1109-1130.
- Kennedy, L. W. & D. R. Forde, (1990). "Routine Activities and Crime: An Analysis of Victimization in Canada", *Criminology*, 28(1): 137-152.
- Larsson, Daniel, (2006). "Exposure to Crime as a Consequence of Poverty", *Umea Universitet: Akademiska Avhandlingar vid Sociologiska Institutionen*, 47: 1-44.
- McLaughlin, E. & J. Muncie, (2006).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McLaughlin, E. & T. Newburn, (2010). 「Criminological Theory」,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
- Miethe, T. D. & R. F. Meier,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SUNY seies in Deviance and Social Contro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iethe, T. D. & D. McDowall,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 741-759.
- Miethe, T. D., M. C. Strafford & J. S. Long,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84-194.
- Osgood, D. Wayne et al.,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35-655.
- Rossmo, D. K., (1999). 「Geographic Profiling」, Boca Raton, FL: CRC Press.
- Siegel, Larry., (2010), 「Criminology : Theory, Patterns and Typologie

s」, Stamford(CT) : Wadsworth.

Smith, W. R., S. G. Frazee & E. L. Davison., (2000). "Furthering the Integration of Routine Activit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ies: Small Units of Analysis and the Study of Street Robbery as a Diffusion Process". *Criminology*, 38(2): 489-524.

<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places that Robberies were occurred and Robbery Methods

Kim, Ji Youn* · Kim, Ji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lation of variables are related to robbery. A robbery is felony because it involves the use of force to obtain money or goods and it can lead to violence or murder. Although the robbery is considered a very serious crime, the study of this is not accomplished a lot.

Formal statistics shows the recidivism of the high rate in robbery. Therefore cognition of robbers about spaces or places that crime was occurred can be related to crime method, choice of target, victimization typology.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answering the questions mention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the places that crimes were occurred will relate to crim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crimes. The second question is the typology of specific places.

Key Words: robbery, victimization, routine-activity theory, life-style theory, crime-pattern theory

* Lecturer, School of Administration & Police, Dongyang University.

** Chief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